

한말의 농사시험연구와 최초의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

양배추 등 80여종 망우리서 시험재배

18세기 말경, 우리 농학계에서는 북학파(北學派)를 비롯한 실학 유생(儒生)들에 의해 농업기술의 획기적 개선을 꾀하자는 의식이 점차 높아갔다. 그 중 박지원(朴趾源 1737~1805년)은 국가가 모범농장을 설치하여 농업지도자를 양성하자 하였고, 그의 제자 박제가(朴齊家 1750~1815년)는 모범농장은 국공유지로 되어있는 여려 곳의 둔전(屯田)을 활용하되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농기구개량은 모범농장에서 일차시험을 거쳐 모범을 보여야 농민들에게 쉽사리 기술 보급이 될 것이라 하였다. 곧 농업연구를 위한 농사시험장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1798년에는 정조(正祖)가 전국의 실학 유생들에게 구농서윤음(求農書諭音)을 발포하자 누구든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농정제도에 대하여 농서(農書)나 농소(農疏)로 써서 올리라 하였다. 이때 70여명의 실학 유생들이 이 왕명에 따라 자기주권을 진달하였는데 그 중 김양직(金養直)은 농업기술에 밝은 농로(農老)를 관리로 임명, 권농(勸農)의 직임을 맡게 하자고 건의하였고, 우하영(禹夏永)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권농관(勸農官)제를 부활시키되 그 중 우수한 권농관은 매년 고위 문관직에 등용하여 권농을 촉진시키자고 건의하

였다. 그러나 다음해 정조가 사망하자 이러한 건의는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1876년 일본과의 강압적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문호를 개방하자 우리나라에는 세계 열강들과 연이어 수호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 중 미국과는 1882년에 수호조약을 맺게 되었고, 1883년 초 서울에 미국의 공사, L.H.Foote가 부임하자 그 담례로 우리나라 최초의 견미 외교사절인 보빙사(報聘使)일행이 미국에 가게 되었다.

서양채소 씨앗 전국 보급

전권대신은 민비의 조카로 24세의 민영익(閔泳翊)이었으며 부대신은 28세의 홍영식(洪英植), 종사관으로 서광범, 유길준, 변수, 고영철, 현홍택 등 30세 미만의 젊은 사절이었다. 이 때 무관으로 훈련원 주부(注簿 종6품), 최경석(崔景錫)이 수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1883년 5월 한국을 떠나 9월 15일에 워싱턴에 도착, Chester Arthur 대통령에게 국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절차를 마치고 보스턴에 도착, 그 곳에서 퇴역 대령이 경영하는 Walcott 시범농장을 시찰하였다. 이어서 그 곳에서 개최중인 박람회를 참관하고 처음 보는 온실재배, 팔뚝길이의

옥수수를 비롯한 우수한 각종 작물과 가축의 품종, 개량된 농기구 등 환상적인 농업발전상에 매료되었다.

일행 중에서 무관이었던 최경석은 농업기술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연구하는 국립농사시험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 국무장관 F.T.Frelinghuysen을 만나 종자, 종축, 농기구의 지원과 우수한 농업기술자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최경석은 귀국하자 곧 고종(高宗)에게 농사시험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고종으로부터 망우리 일대의 국유지를 하사받아 1884년 초 독립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을 설치하고 초대 장장이 되었다. 최경석이 요청하였던 종자, 농기구 등 18개 포장물은 당시 우리나라 명예총영사로 갑자기 임명된 Everett Frazer(厚禮節)의 부담으로 1884년 초에 도착되어 그 해부터 시험재배에 들어갔다. Frazer는 그 인연으로 1887년 경복궁에 최초로 전기공사를 시공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때 도입된 종자는 모두 80여종 3백 45품종이었으며 흥미로운 것은 양배추, 셀러리 등 낮선 서양채소가 이 때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 시험장은 고종황제의 특별지원으로 활기차

1883년 미국 공사가 부임하자 우리나라 최초로 보빙사(報聘使) 일행이 미국을 방문하여 보스턴의 시범농장을 시찰했다.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사로 미국을 방문한 사절들은 종자와 농업기술자 파견을 요청했으며 고종에게 농사시험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1884년 우리나라 최초로 망우리에 농무목축시험장을 설립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 들여온 양배추·샐러리 등 80여종의 서양채소를 시험재배했으며 1885년에는 젖소와 씨돼지도 도입, 시험 사육하며 농업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게 일하여 당년에 채증된 씨앗은 해설서를 첨부하여 그 해 말 전국의 3백5개 군현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젖소·씨돼지도 시험 사육

1885년에는 젖소와 씨돼지를 비롯한 가축도 도입되었고 농사도 성공적이어서 서양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채소를 외국공관에 분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이 있듯이 시험장 발족 3년만인 1886년 장장인 최경석이 갑자기 병사하고 미국에 요청하였던 농업기사도 오지 않은 상태라서 시험장 운영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결국 시험장은 1886년 8월에 통리군국사무아문의 후신으로 1885년에 개편된 내무부(內務部)의 농무사(農務司) 소속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농목국(農牧局)으로 개칭되었다.

최경석이 초빙하였던 농업기사는 1887년 9월 1일자로 영국인 제프레이(R.Jaffray)가 뒤늦게 부임하였다. 그는 농목국의 운영을 맡은 기술자일 뿐 아니라 2년제의 농업학교를 설립하고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칠 계획도 세웠으며 부족한 농기구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을 시작한지 10개월 만인 1888년 7월에 그마저 사망하였다. 그 후 시험장은 방치

상태나 다름없다가 갑오개혁 후인 1896년 프랑스인 기사 스코트(Scott)가 초빙되어 관리하였다. 고바야가와(小早川九郎)가 쓴 조선 농업발달사에는 1902년 농상공부기사 프랑스인 쇼 오토(ショット)가 신촌역 부근에 모범적인 축사를 짓고 세계적인 젖소, 돼지, 면양 품종들을 시험 사육하였으나, 20여두의 젖소는 우역(牛瘦)으로, 돼지는 돈역(豚瘦)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스코트’와 ‘쇼오토’가 같은 인물인지는 의문이며 이 모범사육장이 아마도 소박한 축산시험장이 아니었던가 믿어진다.

필동엔 잠업시험장 개설

이에 앞서 1900년에는 서울 중구 필동에 농상공부 소속의 잠업(蚕業)시험장이 개설되었다. 이는 그 무렵 유럽 제국의 견직물(絹織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본이 견사(絹絲)를 수출하고 이의 수출대전으로 서양의 문물을 도입, 근대화의 기초가 된 명치유신(明治維新)을 성공시킨 개발모델을 본받은 것이었다. 이 시험장은 1904년 잠상(蚕桑)시험장으로 개칭되고, 1905년 관리의 녹곡(祿穀)을 보관하던 서강의 광흥창(廣興倉) 자리로 옮겼으나 이 곳이 군용지로 수용되자

1906년 다시 돈을 만들던 용산의 천환국(典圜局) 자리로 옮겼다.

작물을 연구하는 농사시험장은 1905년에 뚝섬에 있던 학부(學部) 소속의 농상공학교 실습지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1906년 농상공학교에서 농림학교가 수원으로 분립되자 채소, 과일, 화훼연구만을 전담하는 농상공부 원예(園藝) 모범장으로 개편되었다.

오늘날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은 당초 작물과 축산 연구를 목적으로 1906년 수원에 설치되었다. 토지는 정조(正祖) 때 화성의 장용외영(壯勇外營)에서 경영하던 둔전(屯田)이었으나, 설치 당시는 궁내부(宮內府) 경리원(經理院)의 수조(收租)지였다. 이 권업모범장은 1907년에 용산의 잠업시험장을 흡수하고 1910년에는 뚝섬의 원예모범장을 흡수하여 명실공히 종합농사연구기관이 되었다. 1929년에는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어 우리농업 연구나 농업기술 개선 등, 농업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우리 역사상 비로소 깊주립에서 벗어나는 녹색혁명의 산실이 되기도 하였다. ⑦

金 榮 鎮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